

## 진술조서(1회)

성명 : 조우형

주민등록번호 :

직업 :

주거 :

등록기준지 :

직장주소 :

연락처 :

위의 사람은 피의자 이강길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4. 1. 15.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주)뮤지엄의 대표이자, (주)ADD&C의 실질적 대표인데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강길과 용역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참고인의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사법경찰관(리)은 진술인 조우형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하다.

문 진술인의 가족관계는 어떠한가요

답 처 박 (39,주부)와 자녀 명을 포함해서 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 사회적인 경력은요?

답 대학교 농경제과를 졸업했고요 학교 졸업후에 직장생활등을 거쳐서 2002년경 부터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문 건강상태는 어떠한가요

답 질병등이 없이 건강한 편입니다.

문 진술인은 (주)뮤지엄과 (주)ADD&C의 대표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들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가요

답 (주)뮤지엄은 '05년도 중반에 설립된 회사인데 그 회사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타운하우스 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요, (주)ADD&C는 '10. 5~6월경에 설립된 회사인데 상품개발, 설계, 무역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문 위 회사들은 건축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들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제가 타운하우스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것이고요, 지금까지 고급 단독주택과 호텔등을 짓고 이를 분양하는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 (주)뮤지엄이나 (주)ADD&C가 금융자문을 위한 회사들은 아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진술인은 부산저축은행의 오너의 일가가 맞는가요

답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처 이 씨가 제 고종사촌누나입니다. 그러니까 박연호 회장이 사촌매형이 되는 것입니다.

문 그러면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은 어떤 관계인가요.

답 박연호 회장과 김양부회장은 공동으로 부산저축은행을 설립한 사람들로서 서로 친인척 관계는 아닙니다.

문 진술인이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사촌처남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업무에 관여해 왔는가요.

답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저는 단순히 건축업자인 것입니다.

문 진술인은 이강길을 알고 있지요

답 예

문 이강길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답 저는 원래 타운하우스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삼성중공업과 '05년경부터 일을 해 오고 있던 것인데요, '09. 10월경 삼성중공업측으로부터 삼성물산에서 대장동 비비리힐스 프로젝트를 검토중에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물산을 통해서 대장동에 찾아가 이강길 회장을 처음 만났고, 오프에 진행중이던 프로젝트등을 보여주면서 설득하여 대장동에 고급주택과 빌라의 설계와 분양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약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강길을 처음 본 것이 '09. 10월경으로 생각됩니다.

문 누구의 소개로 가고 그런 것은 아니네요

답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삼성물산을 통해서 이강길이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문 이강길을 알게 된 뒤에 바로 대장동 현장에 가기 시작했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렇다면 현장에 출입할 때 이강길 주변사람들을 다 보았나요

답 예 가보니 정영학 회계사, 민철홍 감정평가사, 정재창 법무사사무장, 그리고 12

월경에 남옥변호사가 왔던 것입니다. 전태욱은 저보다 먼저 왔기는 했는데 현장에 잘 오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문 진술인이 대장동사업에 참여한 이후에 김용철등이 온 것인가요

답 예 그분이 대장동에 온 것은 '10. 1~2월경으로 기억하고 그보다 저는 '09년도 10월경 삼성물산에서 그분을 먼저 봤던 것입니다. 제가 원래 진행하던 사업 때문에 삼성물산 사람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분도 그것 때문에 본 것입니다. 김연규는 저음 본 사람으로 김용철과 김연규가 같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 외 (주)대장AMC직원들을 다 알고 있나요

답 예 신선한도 알고, 김도윤, 김준덕, 박수호, 이성호 등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문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등 제2금융권 저축은행들이 이강길에게 대출을 해준 것을 알고 있나요

답 예 알고 있습니다.

문 그 대출 경위도 알고 있나요

답 미래에셋을 통해서 대주단이 모집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출이 실행된 뒤에 이강길씨가 사정을 해서 김양부회장과 이강길을 만날 수 있게 주선을 해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부산저축은행이 대검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인데 '09년 말부터 '10년초에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융자문수수료와 이자를 선취해서 이익으로 회계처리했던 것을 알았고 김양부회장은 그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 대장동에도 많은 대출을 해주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BIS비율이 높으면 좋은 점이 있나요

답 BIS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영업정지등을 당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 는 BIS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대출이 실행이 되어 이자가 상환이 완료되어야 은행의 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할수 있는 것인데 부산저축은행은 변칙적으로 대출실행시에 금융자문수수료와 이자를 선취해서 이를

이익으로 회계처리 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대점의 수사를 받았고 7조원의 부실대출을 해주었다는 수사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대장동 사업관련해서도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이강길이가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인가요

답 이강길측에서는 대주단측을 만나보길 원했던 것인데요 추가대출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어서 얼굴도장을 찍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 이강길도 진술인이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일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 이강길이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최초 부산저축은행이 대출은행이 아니었는데 브릿지 대출이 어려워지자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정영학을 통해 진술인을 영입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인가요

답 <sup>진</sup>그런 <sup>진</sup>아니고요 제가 먼저 이강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대장동에 고급주택을 지을수 있다고 해서 찾아 간 것이지 부산저축은행 때문에 찾아가거나 찾아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문 이강길은 진술인이 부산저축은행 오너의 일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답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진술인은 이강길의 자문단이라는 사람들을 알고 있나요

답 예 정영학, 민철홍, 남욱, 정재창, 저를 자문단이라고 일컬더라고요 저희는 자문단으로 구성을 하려 한 것이 아니고 이강길이가 저희를 타인들에게 소개할 때 자문단이라고 소개를 해버려서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렇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진술인은 대장동에 와서 어떤 일을 한 것인가요

답 저는 대장동에 고급 주택과 빌라를 설계하고 분양할수 있는 일을 수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서도 작성했던 것이고요

문 진술인이 어떤 계약을 맺었나요

답 저는 원래 고급 주택을 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강길과 약속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20가지 고급주택 설계타입을 이강길에게 팔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타입을 제가 건당 5000만원씩 해서 총 11억원(VAT포함)에 제공하기로 구두상으로 계약을 했던 것이고요, 사실 제가 이강길에게 받은 것은 총 10억 3,000만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7,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 진술인의 회사와 (주)나인하우스, (주)대장PFV, (주)C7과 맺은 계약들이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지요

답 예, (주)뮤지엄으로 3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ADD&C로 1개 작성된 것입니다.

문 그러면 이강길의 법인 3개와 각기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원래 본질은 총 11억원에 용역결과물을 제공하기로 했던 것인데 이렇게 찢어져서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제가 돈을 받을때마다 나누어서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브릿지대출을 받는 회사가 (주)C7에서 (주)대장PFV, (주)나인하우스 등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 각 회사별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제가 사실 부산저축은행측에 알아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돈이 나올지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나올 무렵에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주)뮤지엄이 실제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설계자산이 약 20억원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려고 했던 것인데요 이강길도 대출이 언제 집행이 될 것인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알아봐 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문 (주)뮤지엄과 계약을 보면 '09. 11. 1. (주)C7과 계약을 하고, '09. 12. 15.에 대장PFV와 계약을 했고요, '10. 2. 15.에 (주)나인하우스와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는 누가 작성한 것인가요

답 제가 작성했습니다. 전문가쪽에선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 뮤지엄과 이강길 회사와 맺은 용역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도시개발사업의 결과를 보면 중저밀도 주거지의 미분양으로 사업적인 문제가 생겼었고, 삼성물산에서도 사업참여의 걸림돌이 중저밀도 주거지의 분양성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대장동은 비버리힐즈 프로젝트로 불릴 정도로 중저밀도 주거지 사업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성이 검증된 (주)뮤지엄의 설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뮤지엄에 의견청취 요청이 있었고, 삼성물산의 '조건부 사업참여의향서'의 발급이 브릿지론 실행 조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할 용역의 내용은 단독주택 상품의 기획 및 설계자문, 주택시장 조사, 상품분석, 단독주택 평면제공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문 그럼 용역제공 항목 4항에 보면 "PF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문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업이 주 종목인데 왜 여기 PF자금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 것인가요.

답 그것은 삼성물산에서 참여의향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저의 의견이 중요했던 부분을 강조해서 기재했던 것이고, 용역비를 받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강길이가 PF에 대한 자문이 아니고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분양성을 평가하는 자문을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상호저축은행에서는 실제로 심의를 한 조건일때 삼성물산의 '조건부 사업참여의향서'를 첨부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까지 한 것이므로 제가 그런 용역을 할 것이고 실제로 했던 용역들이었습니다.

문 건축사업을 하는 사람이 PF까지 용역을 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보는가요

답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이렇습니다. 미래에셋에 의해서 한국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심의를 했는데 그 조건중 하나가 대형시공사의 조건부사업참여의향서자 첨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강길 회장이 삼성물산과 협의를 했고, 도시개발사업의 항상 문제점이던 중저밀도의 미분양문제 때문에 삼성그룹내에서 타운하우스를 담당하던 삼성중공업 건설사업부문 타운하우스 담당자에게 무문의가 왔고, 그 사람이 저에게 대장동의 의견을 물었고 제가 들어가서 확인한

삼성중공업과 두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속리  
가4자

바, 제 답은 양지고객이나 오폭고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분양에 문제가 없다 라는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에 제가 분양이 할 수 있다는 답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삼성물산이 조건부 사업참여의향서를 발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이 일어날 수 있게 의사결정이 되었고 순서대로 프라임, 제일저축은행등이 참여하였고, 그리고 나서 부산저축은행도 미래에셋의 주선으로 대주단에 합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일을 한 공적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해서 용역비를 수월하게 받을 생각에 이러한 부분을 용역계약서에 어필했던 것입니다.

문 진술인이 부산저축은행 오너의 일가로서 대출을 수월하게 받을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답 예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최초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결정되는데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계약서에 어필을 했던 것 뿐입니다. 제가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처남이긴 하지만 대출문제에 절대 관여한 바 없고 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타운하우스 전문가이고 매일경제신문에서 선정된 '살기좋은집'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계통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문 그렇다면 그 용역에 대한 용역결과물은 제출했나요

답 예 '10. 7월경 (주)대장AMC 사무실로 제출했어요, 20개 설계타입 전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부산저축은행 수사시 검찰에도 용역 결과물을 모두 제출했었던 것입니다.

문 (주)ADD&C와 맺은 계약은 무엇인가요

답 그것은 저와 맺은 용역이 끝나갈 무렵에 작성된 계약서인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산출물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 (주)뮤지엄으로 하다가 왜 (주)ADD&C로 바꾼 것인가요

답 원래는 뮤지엄만 운영해 오다가 설계전문 법인인 (주)ADD&C를 '10. 5~6월경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했습니다.



문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건축설계, 디자인, 개발, 시공의 약자인데요 그 모든 것을 하는 업체를 새로 만든 것입니다.

문 대표는 누구인가요

답 최석환인데요 저희 직원입니다. 최석환을 대표로 한 이유는 설계 및 상품개발에 제일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를 대표로 했고 저는 이미 (주)더뮤지엄양지 라는 회사의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최석환을 대표로 세웠던 것입니다.

문 '10. 5. 17.에 (주)나인하우스와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날 작성된 것인가요

답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 신선한의 진술에 의하면 (주)나인하우스와 (주)ADD&C와의 용역계약은 부산저축은행에 IR비용을 만드는 과정에서 김용철의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아닌가요

답 그건 아니구요 제가 이강길과 맺은 11억원의 용역대금을 받기 위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부산저축은행 IR비용이라는 것은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사실 IR비용이라는 그런 뜻도 모르고 있습니다.

문 진술인이 신선한측에 부산저축은행에 1억원의 IR비용을 줘야 한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려했고, 그때 김용철이가 비자금 1억원을 더 만들도록 지시해서 2억원의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진술인이 그렇게 되면 IR비용을 2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해서 총 3억원의 계약이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답 그게 옳고요 저는 분명 제 용역대금을 받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 맞습니다.

문 그렇다면 나머지 7천만원도 포함 시키지 왜 남겨둔 것인가요

답 차후에 받고 싶었지만 '10. 8월경부터 사업이 지지부진해졌던 것입니다. 맥이 빠진 것처럼 진척도 없고 특히 이강길 회장은 제가 실행한 용역에 대해서도 별

관심도 없는 듯 보였으니까요 초기에 저와형의한 것은 기억이나 할지 모르겠네요

문 진술인은 3억원을 받긴 받았나요

답 예 받았고요 3억원은 현재에도 (주)ADD&C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문 김연규 또는 김용철이가 1억원을 받아가지는 않았나요

답 아니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문 진술인은 '12년도 분당서 수사를 받았지요

답 예 분당서 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까지도 받아서 제가 운영하고 있던 회사 4개소가 모두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지도 소환이 되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 분당경찰서 수사시에 용역결과물이라고 하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답 그것은 PPT자료를 제출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용역결과물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제가 제출한게 아니고 AMC측에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문 그 자료가 진술인이 했던 용역결과물이 맞나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진술인이 했던 용역이 이강길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진행과정상에 시기상 맞는 용역인가요

답 예 맞는 용역이고요, 중저밀도 분양성이 중요했고 중저밀도 주거지의 배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용역이었습니다. 제가 평면도 같은 것을 제공했는데 그것은 양지 오폭에서 분양성이 검증된 기본타입들인데 꼭 그렇게 짓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대장동에도 접목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회사에서는 그런 집을 지어 분양을 성공시킬수 있다는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저의 용역의 결과물이 있어야만이 개발을 할때 지  
밀도, 중밀도, 고밀도 주거지의 배치를 결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문 지금까지의 주장을 보면 실질적인 용역이었고 용역결과물도 있다고 하는데 왜  
신선한은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일까요

답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문 이강길은 진술인과 맺은 계약은 부산저축은행에 지출요청을 할때 진술인이 수  
월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요구해서 이를 지불하기 위한 계약이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제가 검찰에서 수사받은 것이 대장동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요 부산저  
축은행에서 이강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중간에서 제가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는데 만약 그랬다면 제가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전혀 그  
런 사실이 없고 이강길에게 돈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돈을 만들어준 대가를  
취한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문 이강길이 주장하는 것은 정재항의 법인과 맺은 계약, 또 이플러스원 건축사 사  
무소나 미래이앤씨와 같은 회사와 맺은 용역계약등이 모두 비자금 조성을 위한  
용역계약이고, 실제로 비자금을 조성해 주었다는 용역사의 진술도 있습니다. 허  
위용역에 의한 지출요청을 할때 진술인이 부산저축은행에 찾아가서 지출이 수  
월할수 있게 해 준 사실이 있나요

답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가서 그런 일을 할 이유도 없고 들어줄 사람들도 아닙니다.

문 지출요청이 되면 반드시 저축은행에서 심의가 있었을 텐데요 그럴때 진술인이  
관여한 것이 아닌가요

답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요 저축은행측에서는 이미 대출이 결정된 상황에서 대출  
을 받은 자가 지출요청을 하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업은 대출을 해준 만큼 담보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안가져가면  
이상한 것입니다. 저축은행 측에서는 고민이 없는 것입니다.

문 전혀 심의를 안한다는 것인가요.

답 이강길 회장에게 직접 지급해주는 것만 통제할 뿐이지 용역사 명의로 들어온 것을 안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문 이강길이나 신선한은 매 지출건마다 진술인이 관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인가요.

답 절대 아닙니다. 담당자들에게 돈나오는 날이 언제인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알아봐 준 것 밖에 없습니다.

문 박연호 회장이나 김양 부회장에게 진술인이 심의를 할때 통과될수 있도록 청탁 하지는 않았나요.

답 그런 것은 없고요. 김양 부회장은 오히려 삼성물산과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했고요, 한국저축은행, 프라임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등이 이미 의사결정한 상태라서 믿고 가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지출을 해줘라 마라 할 상황도 아니고 할 위치도 아닙니다. 제 일도 그런 일을 하는것도 아니었고요.

문 진술인은 대장동사업에 참여하면서 어느정도로 자주 이강길을 보았나요.

답 저도 '09. 10월경부터 '10. 1월까지는 일주일에 3~4회 정도 대장동 현장에 가서 배치관련해서 우리직원들과 미팅도 하고 가끔 이강길도 오면 만나고 하는 정도였는데 이강길과 붙어다닐 정도는 아니고 와서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 시기에는 전부 이강길에게 잘 보일려고 하는 시기였어요.

문 왜요?

답 용역비를 받아야 하고 용역을 수주하려고도 했으므로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이죠.

문 그렇다면 진술인은 용역비 지출요청을 하는 업무를 신선한이 담당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에 신선한에게 용역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문 혹시 용역비 요구하면서 신선한이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나요

답 저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런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받으려면 신선한에게 용돈을 줘야 한다 라는 말을 현장에 있는 모든 용역사로부터 들었습니다.

문 정영학이나 정재창도 돈을 요구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답 그 사람들에게도 들었어요 신선한에게 용돈을 줘야한다고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신선한이 처지가 좋지 못해서 주거도 불확실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삼성에서 퇴직도 시행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유착이 되어서 불명예퇴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 당시에 진술인이 이강길의 자문단이라고 일컬어 졌다는데 당시 대장동 사업의 진행상황을 알고 있나요

답 저는 잘 모릅니다. 단 저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그들이 제안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산지축은행측에서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거냐 라고 물어봐서 제가 접수증을 확보해서 저도 가지고 있었고, 지축은행에도 말을 해주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줄 알았습니다.

문 그렇다면 사업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나요

답 저는 안되고 있다는 사실은 솔직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저는 정말 왜 이렇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단지 저는 대출금 만기가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강길은 사실 '10. 8~9월경 이미 사업에 대한 애착도 없었고 빠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10. 10월경에 대장동추진위원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강길은 사업을 못할 것 같으니 저에게 말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강길 회장을 만났고 이강길 회장도 저축은행들을 설득해서 만기연장만 하면 잘 될거다 라고 해서 저에게 사업을 넘긴다는 계약서를 작

성했던 것이고 그래서 1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을 이강길 본인 명의 통장으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김용철에게 부탁해서 AMC를 맡아 달라고 요구해서 김용철이가 다시 오게 된 것인데요 '11. 2. 11.에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고 만기연장 협의가 불가능해져서 제 능력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김용철 사장에게 완전히 넘긴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강길에게 주었던 돈을 인정받아서 주식의 8%의 지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문 이강길에게 10억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업권을 인수했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난 것인가요

석의  
자녀

답 제가 개인적으로 번 돈인데요 제가 몸담고 있던 미래산업소프트포럼의 주식상장으로 번 돈과 아파트를 매각한 돈 등으로 마련했던 것입니다.

문 이강길 본인 통장으로 송금한 것인가요

답 예

문 왜 돈을 주었나요

에 대한 대가를

자녀

답 사업권을 준 것입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전체 줄 금액은 40~50억원으로 기억하고요. 그중 10억원정도를 준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김용철은 본인에게 사업권을 받아서 어떻게 했나요

답 자주들과 마찰로 인해서 사업에서 손을 떼고 남욱 변호사가 사업에 대표가 되어 대장동 사업을 끌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 진술인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면서 자문단의 역할이나 김용철등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는게 있나요

답 그 당시 이강길이 주로 하던 일이 자주들을 만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을 할때 항상 자문단이라는 자들을 활용했어요 계약서 작성등은 변호사, 땅에 대해서는 평가사, 세금문제는 회계사 등으로 하여금 자문토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출이 일어나고 나서 대표적인 이강길의 실수가 대장동

에 올스토크이스 엔지니어라는 최고급 승용차를 받고 왔는데 그때부터 지주들의 신뢰가 무너졌고,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문 그게 언제쯤인가요

답 정확히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대장동 사업에 애착을 버리기 시작한 것이 '10. 5~6월경으로 기억합니다. 차를 산 것이 바로 그 무렵 일 것 같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지주들도 이강길을 손가락질 했어요

문 떠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답 저와 정재창, 정영학, 남욱, 민철홍등인데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강길이가 저런 식으로 하니까 사업이 힘들어질거다 라고 하면서 걱정도 하고 떠난 것인데 저와 같이 일산 풍동 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법인을 차렸던 것입니다.

문 그때 어떤 법인을 설립한 것인가요

답 그때 만든게 벨리타하우스 도시개발풍동 등입니다.

문 대표는요?

답 벨리타하우스는 제가 대표였고, 풍동은 남욱 변호사가 맡았어요 그때도 저는 이런 사업을 모르니까 대표를 맡으면서 남욱, 정재창, 정영학, 민철홍이가 용역등을 역할을 했었지요 저는 대출 600억원을 대출받았고요 그런데 사업이 가다가 부산저축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대출금 집행이 중단되어서 사업이 멈췄습니다.

문 당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답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정영학과 정재창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문제인지 모릅니다.

문 진술인은 '12년도 분당서 수사시에 소환되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당시에 최윤길이나 남욱, 정영학, 김용철등이 진술인에게 조사시 무조건 모른다고 하라는 등의 사주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 그들이 수사에 대비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신선한에게는 진술을 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하는데 진술인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답 예 전혀요 제가 전화를 해서. 뭔데 나를 경찰에서 오라고 하나고 정영학과 남욱에게 물어봤는데요 신선한이 용역비로 로비자금을 만들어주었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다고 했더니 경찰에 들어가면 그런걸 물어볼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문 최근 남욱이나 정영학 등과 연락을 주고 받았나요

답 예 이번에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고 남욱과 정영학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때 하는 말이 **분당과 같은 건인 것 같다** 라고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알고 왔고요

문 별다른 말은 없던가요

답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문 **진술인이 검찰에서 부산저축은행 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조사를 받은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건 뿐만 아니라 박연호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뇌물등을 전달한게 아니냐 그리고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대정등 사업 등도~~ ~~연관이 있었는대~~ 박연호 회장이 비자금을 만들때 대출을 해준 회사로부터 저를 돈세탁에 이용하지 않았냐 라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았어요**

문 수사결과呢요

답 박연호, 김양 부회장이 배임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형을 선고받았고요 이사 3~4명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모두 무혐의처분되었고요, 뇌물을 전달했다는 브로커 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서 뇌물부분은 수사가 종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수사결과 저뿐만 아니라 회사, 가족들의 모든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소환되어 조사를 받아 저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행위를 했으면 벌써 검찰에서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검찰수사에서도 제가 마치 김용부 이사나 김용 부회장을 매수한 것처럼 물어보던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저는 조금전 말한 것처럼 부산저축은행과는 전혀 무관하고 로비를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강길의 말대로라면 제가 마치 은행측 사람들과 결탁이 되어서 지출이 안될 부분을 되게끔 한 것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말도 안되고 그런 행위를 했으면 제가 벌써 잡혀갔을 겁니다.

문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강길이 이렇게 진술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답 어차피 자기다 못한 사업 남들도 못했으면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해도 안가고요.

문 예금보험공사에서 이강길의 회신 남욱의 회사, 정영학의 회사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것을 알고 있나요

답 저는 잘 모릅니다.

문 이강길은 자신의 비자금 조성이나 뇌물부분에 대해서 혐의사실을 시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짓진술을 할것으로 보이진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보에서 그런 것을 조사한다면 경찰보다는 더 면밀히 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수를 칠수는 있는 것입니다.

문 진술인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김용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나요

답 저는 알겠는자 잘 모릅니다.

문 당시 상황이 LH나, 시의원들에게 로비가 필요했던 시기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그런거 저는 모릅니다. 그냥 저는 집을 파는 것이 목적이므로 회사사정이나 대  
장동 사업의 진행등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문 김용철이가 시의원들을 만나고 다니고 그런 것도 모르나요

답 예 모릅니다.

문 진술인은 처벌이 두렵거나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서 허위로 진술  
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문 이상 진술이 모두 사실인가요

답

예 사실입니다.